

지역 소식통

김제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선발 평가 실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4일부터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오는 5월 1일까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에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4.4ha) 입주 청년농 선발 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발 규모는 총 3팀(팀당 3명), 최대 9명의 온실 입주자를 선발하며, 최대 3년간 임대료를 체결할 수 있다.

임대형 스마트팜의 신청 자격 요건은 선발공모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의 청년농이다. 임대료는 공유재산 경작용 특례를 적용해 연간 1인 약 25만원 상당이어서 예비 청년농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발 절차는 서류(30%), 필기(30%), 면접(40%) 합산으로 평가되며 4일 필기시험(주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전국 4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동시에 치러지고, 이후 서류평가는 오는 22일, 면접 평가는 오는 5월 1일에 실시 예정이다. 추후 최종합격자 발표는 5월 말에 발표된다. /김제=곽노태기자

내지역 김제 주조사기 운동 김제시 회계과, 적극 홍보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3일 익산세무서 김제지서를 방문해 김제지역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한 인구정책인 '내지역 김제 주조사기 운동'을 적극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제시 회계과는 이번 방문에서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지역 성장의 선결 요건인 김제시 인구확보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인구정책들을 홍보하고 익산세무서 김제지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요청했다.

실제로 최근 김제시 전입을 하고도 전입 지원정책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무서 직원 및 가족들이 없도록 전입 장려금, 청년주부 주택수당, 결혼축하금, 청년 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등 김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인구정책들을 안내했다. /김제=곽노태기자

김제 꽃빛드리축제, 지역 축제 차별화

청년농업인·지역농민·지역상권 자제 참여... 축제 새 패러다임 제시

착한가격으로 일상의 행복과 소소한 기쁨을 전달한 2024 김제 꽃빛드리축제가 다시한번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역상권의 적극적 참여와 현실성 있는 착한가격 부스 운영(3,000~1만원)은 지역 축제의 방향성을 새롭게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일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 2024 김제 꽃빛드리축제는 3일동안 7개 ZONE, 130팀이 참여해 김제시민문

화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렸다.

꽃빛드리축제는 농특산물 프러마켓, 체험부스, 먹거리부스, 어린이놀이공간, 버스킹 공연, 예술작품 전시 및 포토존으로 축제를 운영해 일상의 행복, 소소한 기쁨, 설레는 순간, 사소한 재미를 전달했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 김제농촌활력센터, (사)김제도농협력사업단, 몽상두깨비 협동조합, 크레용팜협동조합, 행동하는청년협동조합, 지역 경영체 86개 업체 등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지역

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어갔다.

이번 축제는 벚꽃개화시기 지연 및 기상악화에 따른 방문객 수는 감소했지만 참신한 기획운영 및 축제공간 확장에 따라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고 밝고 건강한 축제문화(5無 : 바가지, 술, 담배, 쓰레기, 안전사고)를 조성해 축제 운영의 안정화와 시민중심의 민관협력 발전 방향의 모델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또 축제 공간 확장을 통한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쉴 곳을 제공(2023 : 관매부스 58팀, 먹거리부스 12팀, 2024 : 관매부스 86팀, 먹거리부스 22팀)했으며 참신한 기획운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은 시민의 호응을 얻었다.



2024 김제 꽃빛드리축제가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 가운데 7개 ZONE, 130팀이 참여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시는 축제의 참여자 확대 및 역량강화, 다양한 콘텐츠 개발, 공간 확대 운영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 향후 축제의 지속성과 자립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청년농업인과 지역경영체, 지역상권의 적극적인 참여로 일상의 행복과 소소한 감동을 전한 꽃빛드리 축제가 자리매김해 새로운 축제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면서 "이러한 지역축제가 활성화돼 시민여러분에게 보다 많은 행복과 추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4일 만경 능제수변공원에서 독립운동유공자 유족과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0회 만경장터 3·1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그날의 희생·함성 기억하며’

제10회 만경장터 3·1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열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4일 만경 능제수변공원에서 독립운동유공자 유족과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0회 만경장터 3·1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만경3·1독립운동기념사업회(회장 허진섭)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정성주 김제시장, 시의원을 비롯해 만세운동을 주도한 오연길 유공자의 후손들과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3·1만세운동의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만경장터 3·1독립만세운동은 1919년 4월 4일 만경장터를 기해 만경공립보통학교 교사 임창무의 6인 등 학생 100여명이 만경장터로 진출, 장터를

찾은 주민 수백명과 함께 전개한 독립만세운동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되살리고, 숭고한 3·1운동 정신을 계승해 김제시민의 자긍심 함양과 후손들의 역사의식을 높이고자 2014년 11월 만경3·1독립운동 기념탑을 건립했으며 올해로 제10회째 기념행사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허진섭 만경3·1독립운동기념사업회장은 기념사에서 "만세운동과 독립을 위한 희생의 고귀한 정신을 이어받아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지역 주민들이 화합하고 단결해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완주풍류학교' 23일까지 새 이름 공모

우수제안자 5명에 상품권 지급

완주군이 '완주풍류학교'의 새 이름을 오는 23일까지 공모한다.

4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풍류학교(교장 김종덕)는 소양면 오성한옥마을 일원에 위치한 한옥 공연장으로 '풍류'를 매개로 전통문화를 보존·전승하며 전통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및 상설공연 등을 기획, 운영하며 꾸준히 마니아층을 형성해 왔다.

하지만 '풍류'라는 명칭이 전 연령층에게 공감할 수 있어 내기 어려워 참여자의 한계를 보여왔다.

이에 군은 문화시설의 특색과 상징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공모는 상징성, 대중성, 공감성, 지속성을 기준으로 1차 내부심사에서 5개 명칭을 선정하고, 2차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명칭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제안자 5명에게는 총 100만 원의 완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완주풍류학교 주말 상설공연 시 별도의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응모방법은 완주군 대표 홈페이지

(www.wanju.go.kr)에서 공모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완주풍류학교 이메일(pungryu7701@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김사라 문화역사과장은 "풍류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명칭 공모에 많은 응모 바란다"며 "오는 4월부터 진행되는 문화공연 및 프로그램 기획에도 만전을 기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풍류학교의 명칭 공모 및 공연 일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완주풍류학교 사무국(063-241-7077)으로 하면 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청명·한식 전후 기간 산불 예방 총력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청명·한식이 있는 4월 초, 성묘객 등 입산객이 많고 본격적인 영농시기로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고 밝혔다.

시는 4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중점추진 기간 중 안전개발국장을 중심으로 한 특별기동 점검·계도반을 편성해 산부취약지역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및 입산객을 중점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활동을 펼친다.

또 대형산불 우려지역에 일몰시간 이후 불법소각 단속을 위한 야간산불 감시 운영체계를 구축해 산불대응 태세 강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시설 생활아동 문화공연 관람 제공

소리문화의전당서 한 달간 연주회·어린이 뮤지컬 등 관람

완주군이 지난 3월 한달 간, 4회에 걸쳐 관내 아동·여성 생활시설 5개소 입소자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했다.

4일 완주군에 따르면 시설 입소자 50여 명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14일 하버드 레드클리프 오케스트라 △15일 전주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30~31일, 최고다 호기심딱지, 시즌 2 뽀빠이 이야기 속으로 등 연주회, 어린이 뮤지컬을 관람했다.

이번 관람은 완주군과 김제천 완주군의회의 의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대표 서현석)의 협조를 통해 추진됐다.

김제천 의원은 평소 아동복지시설 피소아동들의 취업연계를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는 등 시설아동의 자립과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

고 있다.

김 의원은 "다양한 문화공연 관람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시설 입소자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이동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고객지원부장은 "취약계층에게 문화 관람의 유익함을 공유하고자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화를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복지시설 입소자에게 문화관람 기회를 마련해준 완주군의회의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군에서도 취약계층의 다양한 문화경험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